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김 종 식 광주 서구청장

"U대회 선수촌 건축사업 적극 지원"

"서민생활 안정과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고 구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식 광주시 서구청장은 "지난 2010년 서구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구민의 저력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서민생활 안정 실현, 주민생활 불편 해소, 균형있는 지역 개발, 맑고 푸른 도시환경, 격조 높은 문화창달 등 5개 역점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신묘년 각오를 밝혔다.

김 청장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생활 보장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며 이를 위해 "경로당을 확충하거나 수리하고, 소년·소녀가장 및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노인일자리사업과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구민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수렴하고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주민들의 고충이나 억울한 사정에 대해 직접 귀 기울이고 챙길 것"이라면서 "각 동 별 구청장과의 대화 시간을 정례화하고, 이동민원실과 사이버 민원실을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지개량방식으로 결정된 농성동과 유촌동을 포함해 양동, 덕흥동 등 총 7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균형있는 지역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2015년 하계 U대회 선수촌 및 행사 지원시설로 활용될 예정인 화정·염주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에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김 청장은 "금당산과 백석산, 중앙공원에 주민 산책로와 웰빙 숲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도심 속 쉼터를 확충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은행 시범은행 아파트를 확대 운영하고, 자원재활용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밖에 김 청장은 "빛고을국악전수관과 서구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서창만드리풍년제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을 통해 문화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2011년은 서구 만의 색깔이 담긴 비전과 전략에 주민들의 소망을 채워가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850여 공직자와 30만 구민이 함께 노력한다면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 생활 보장

발로뛰는 현장 행정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北 경제력 광주시 수준…남북한 격차 37배

2009년 남북한 주요 지표

	남한	북한	남/북(배)
인구(천명)	48747	24062	2.0
경제성장률	0.2	-0.9	-
무역총액(억달러)	6866	34	201.9
수출(억달러)	3635	11	330.5
수입(억달러)	3231	24	134.6
발전량(억kwh)	4336	235	18.5
원유도입량(천배럴)	835163	3795	220.1
쌀(천t)	4916	1910	2.6
철광석(천t)	455	4955	0.1
자동차(천대)	3513	4	878.3
시멘트(천t)	50126	6126	8.2
철도총연장(km)	3378	5242	0.6
도로총연장(km)	104983	25854	4.1
항만하역능력(천t)	800533	37000	21.6

자료/통계청 북한 주요지표 보고서 연합뉴스

1인당 국민총소득 18배 무역액 202배나 벌어져

2009년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37배나 벌어진 것으로 5일 나타났다.

남한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무역액이 각각 18배와 202배나 앞서는 등 경제 전반에서 북한이 추격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격차를 벌린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최근 작성한 '북한 주요통계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남한의 명목 GNI는 8372억달러로 북한의 224억달러보다 37.4배가 많았다.

즉 북한의 경제력을 모두 합쳐도 광주광역시(22조원 상당) 수준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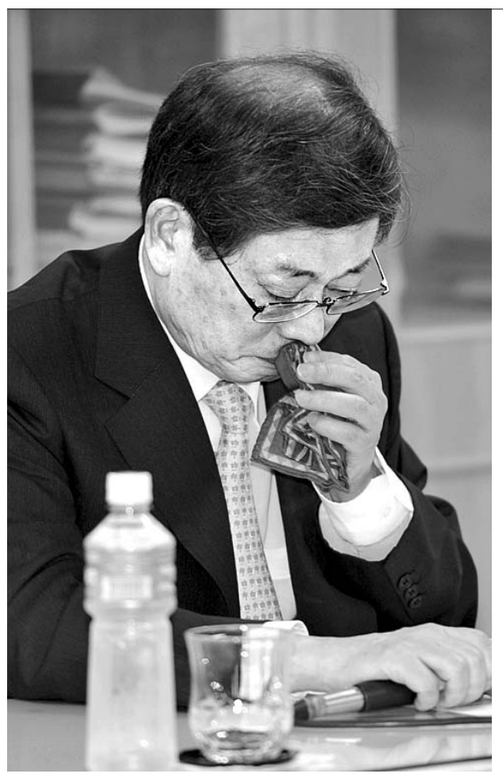
2009년 1인당 GNI는 남한이 1만7천175달러인 반면 북한은 960달러에 불과해 17.9배의 차이를 보였다. 경제성장률은 2009년 남한이 0.2%, 북한은 -0.9%였다. 인구는 남한이 4천874만7천명, 북한이 2천406만2천명으로 남한이 2배였다.

무역 총액에서도 남한은 2009년 6천866억달러였으나 북한은 34억달러에 그쳐 201.9배의 격차를 나타냈다.

주요 공산품 생산량 중 자동차는 남한이 2009년에 351만3000대를 생산한 반면 북한은 4000대에 불과해 무려 878.3배나 남한이 많았다. 조강 생산량은 남한이 4천857만2천t, 북한이 125만5천t으로 38.7배의 격차를 보였다.

농수산물 생산량도 남한이 많았다. 2009년 남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555만3000t으로 북한의 410만8000t보다 1.4배 많았고 쌀은 남한이 491만6000t, 북한이 191만t으로 2.6배, 수산물은 318만2000t과 66만3000t으로 4.8배의 격차를 냈다.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남한은 도로 총연장이 1억498만3000㎞로 북한의 524만2000㎞보다 4.1배 길었다. /연합뉴스



김황식 국무총리가 4일 오전(현지시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있는 한국학교를 방문, 학생들의 학예회 비디오를 본 뒤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남미 순방중인 김황식 총리 파라과이 한국학교서 눈물

남미를 순방 중인 김황식 국무총리가 4일 오전(현지시각) 파라과이의 한국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눈물을 보였다.

그는 이날 아순시온에 있는 학교를 방문, 관계자들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고 학생들의 학예회, 재롱잔치 등이 담긴 비디오를 시청했다.

김 총리는 어린이들의 합창, 전통악기 연주 등의 장면을 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나서 애써 눈물을 참았지만, 눈물은 그치지 않았고 행사장은 갑자기 숙연해졌다.

김 총리는 비디오를 보고 난 뒤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국만리에서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가 합심해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도 대단한데, 뜻을 모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멋지게 키워나가신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체성 유지와 함께 파라과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도 재외동포, 특히 한국학교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北 젊은이 '한류열풍'

북한 주민들 사이에 최근 한국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가고 대도시 젊은이들 가운데는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인 것으로 5일 나타났다.

통계청은 북한 주요통계 지표 보고서에 부록으로 삽입된 경제사회상 부문에서 열린북한통신을 인용해 북한의 한류열풍을 자세히 소개했다.

북한에 유통되는 제품은 믹서기, 열풍기(온풍기), 가스레인지, 가스통, 은나노 도시락, 가스난로, 고압가마(압력밥솥), 행주, 장갑 등으로 이러한 제품에는 한국산 상표 이름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의 엄격한 시장통제에도 한국산 샴푸와 린스 등이 평양 고위급 간부 부인을 중심으로 유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층 가운데는 MP3나 노트북을 이용한 한국 영화와 드라마시청이 붐이다. 최근 몇 년간 인기리에 유통되고 있는 영화는 '친구', '조폭마누라 1-3', '투캅스', '장군의 아들' 등이며 드라마는 '올인', '사랑이 뭐길래', '가을동화', '겨울연가', '천국의 계단', '야인시대' 등이다. /연합뉴스

개방형 첫 공개모집 道감사관에 조경학씨

개방형직위로 첫 공개모집한 전남도 감사관에 조경학 감사원 과장(59·사진)이 내정됐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공모 신청자 6명 중 서류와 면접심사 등을 거쳐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1과장인 조 과장을 최종 선정했다.

신임 조 감사관은 임용절차 등을 거쳐 오는 10일께 전남도의 4급 준국장급 인사에 맞춰 임명될 예정이다. 신안 출신인 조 감사관은 목포고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감사원 조정심의관실, 국가청렴위원회 심사관, 감사청구조사국 등에서 근무했다.

한편 전남도는 복지여성국장과 도 농업기술원 식품연구소장에 대한 공모를 실시했으나 복지여성국장의 경우 1명만 응모하는 등 적격자를 찾지 못해 재공모하기로 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여야 의원 140명 청목회서 접촉"

청원경찰법 개정안 입법로비를 벌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가 여야 국회의원 140명을 접촉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5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목회 간부 피고인 3명에 대한 두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신문을 받던 청목회장 최모(55)씨는 지난해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청목회 간부들이 여야 의원 80명을 직접 면담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의원실 보좌관과 지역사무실을 통해 접촉한 것을 포함하면 (접촉 의원 수가) 140명 정도 된다"며 "이 중 의원 38명에게 모두 3억830만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청목회 전국 사무총장 양모(55)씨는 청목회가 억대의 현금을 5만원권 지폐뭉치로 만들어 국회 의원회관을 다니며 의원실에 후원금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목회 간부들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소환조사를 받은 여야 의원 6명 전원을 다음주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중 한-일 해저터널 '경제성 없음'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을 각각 잇는 해저터널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교통연구원에서 한~일 및 한~중 해저터널에 대한 검토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교통연구원은 작년 초부터 중국 웨이하이(威海)와 ▲인천 ▲경기 화성 ▲평택·당진 ▲황해도 옹진(북한) 등 4곳 중 한 곳을 연결하는 해저터널과 부산~쓰시마~후쿠오카(222.6㎞)를 연결하는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10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 탓에 비용편익비(B/C)가 타당성 수준인 0.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요구해서 용역을 의뢰했지만, 역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논란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